

# 중국 4대 직할시의 지역의식에 대한 고찰\*

朴祥壽\*\*

李政奐·柳庭垣\*\*\*

## <목 차>

1. 서론
2. 4대 직할시
3. 설문문항 조사결과
4. 결론

## 1. 서론

### 1.1 문제제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모든 시선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 매체는 앞으로 미국을 앞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GD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앞지르기도 하였다. 물론 단순히 경제적 규모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도약은 앞으로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일반연구-B00151)

\*\* 제1저자,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sino33@chungbuk.ac.kr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연구교수·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중국은 행정적으로 22개 성과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로 구성된, 그야말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중국의 각 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나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출신지역에 대한 뿌리 깊은 지역적 정체감과 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역인들은 동일한 거주, 동일한 혈통,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자, 동일한 종교, 동일한 풍습, 동일한 생계 등의 공통된 문화를 바탕으로 동질감을 느끼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식을 형성하고 변화해 나간다.

본 논문의 4대 직할시에 대한 정체성 고찰은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4대 직할시는 중국의 대표도시이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의식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4대 직할시의 지역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들 지역의 문헌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짚어볼 것이다. 그런 후에 설문 결과를 가지고 4대 직할시 지역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1.2 기존연구 검토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중국의 4대 직할시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이와 같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민족이나 국가와 연결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열강의 침략에 의한 국가나 민족들은 그들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정체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양계초의 경우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중화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화민족 정체성을 통해 열강에 대항하고 민족의 자주와 자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주장한 나머지 중국의 기타 민족을 배제하고 한족만의 중화민족을 내세웠다. 이것은 당시의 중국인들의 의식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청이 멸망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한족을 지배했던 민족을 부정하면서 시작되었고, 나아가 열강의 침략에 대항에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양계초를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고가 4대 직할시의 지역의식에 관한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전반적인 정체성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스기는 《정체성-해체와 재구성》에서 아시아의 정체성 연구의 한 방법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20세기를 통해 아시아는 서구 열강과의 대치, 독립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투쟁, 근대화, 공업화의 과제와 더불어 내셔널리즘을 중요한 축으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내셔널리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과 국민의 형성은 개개인의 사람보다 '국가'가 우선이었고, 국가라는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족이나 국민의 논리로 추진해온 동화(同化)와 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의 내셔널리즘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은 '국가에 흡수되지 않는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의 고민에서 잘 드러난다.

팀 에덴서는 민족이란 사라지지 않으며 그 정체성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팀 에덴서는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저서에서 민족은 여전히 정체성의 강력한 구성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또 민족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의 역동성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 바탕에는 사람들이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에서 지역과 국가 사이의 관계, 국가와 세계 사이의 관계, 일상성과 특수성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중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 연구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로는 辜鴻銘의 견해가 있다. 그는 진정한 중국인을 溫文爾雅로 표현하고 있다. 溫文爾雅로 표현되는 중국인은 동정심과 지능을 가진 순화된 동물로 비유되는데, 순화된 동물의 지능은 동물의 본능이 아닌 동정심에서 나온 것으로 여긴다.<sup>1)</sup> 그는 이것이 바로 중국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李梵은 《中國人性格分析》이란 책에서 중국의 전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성격을 논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인의 정체성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된다.

지역별 개별연구로는 상해를 연구한 임춘성 외의 《상하이 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이 눈에 띈다. 이 책의 주요 논점은 영화를 통해서 상해인의 정체성을 논하였다는 점이다. 임춘성은 상해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영화와 역사 등을 살펴보고, 그 이론으로는 정체성의 정치학을 사용하였다. 그는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것은 '구별 짓기(distinction)' 또는 '타자화(othernization)'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중국 지역에 대한 개별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의 4대 직할시에 대한 지역별 정체성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4대 직할시의 지역의식 연구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1.3 연구방법

4대 직할시의 특징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고

1) 辜鴻銘 著, 《中國人的精神》, 天津教育出版社, 2007, 17-19쪽.

2) 임춘성 외, 《상하이 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산지니, 2010, 30쪽.

찰을 해 보려고 한다. 역사문화적인 고찰은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역사문화는 오랜 세월동안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역사문화는 앞에서 언급한 “나는 중국이다”, 혹은 “나는 중경인이다” 에서처럼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이 정체성의 밑바탕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비슷한 동질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譚宏은 <重慶城市文化競爭力研究>에서 도시문화를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바 있다. “그들은 장기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거치면서 그들만의 도시문화를 창조했다. 예를 들어, ‘나는 북경인이다’, ‘나는 상해인이다’, ‘나는 중경인이다’, ‘나는 천진인이다’. 등등이다”. “한 도시의 특색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역사와 도시의 인문정신의 기초위에 서서히 형성된 것이다”.<sup>3)</sup> 譚宏은 이 글에서 한 지역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귀속감이나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역사나 문화에 대한 고찰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조사 외에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4대 직할시의 역사문화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나는 내 자신을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 한다.
- (2) 나는 내 자신을 우리 성(省)의 일원이라고 생각 한다.
- (3) 나는 내 자신을 중국 국가의 일원이라고 생각 한다.
- (4) 나는 내 자신을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 한다.
- (5) 나는 내 자신을 독자적인 개인으로 생각 한다.
- (6)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하고 있다.
- (7)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되어 있다.
- (8) 우리 지역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다.
- (9) 나는 이 지역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3) 譚宏, <重慶城市文化競爭力研究>, 《重慶文理學院學報》, 2009.9, 42쪽.

- (1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 (11) 나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바란다.
- (12) 다른 지역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 (13)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
- (14) 정부는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 1.4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중국인이다. 그러나 광활한 중국의 영토를 생각할 때 모든 지역에 대한 정체성 연구란 쉽지 않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먼저 중국의 주요 도시인 4대 직할시의 정체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4대 직할시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진행할 전국 주요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대 직할시는 중국의 중심도시로 지리, 경제, 역사, 문화 등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체성 고찰은 중국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유적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곽이다. 중국은 과거에 북방민족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고, 황제가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城을 쌓아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곽의 출현은 외부세계와의 교류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오기 쉽다. 북경은 북방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긴 시간을 북방민족의 수도로 있어 왔다. 하지만 북방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성을 쌓고, 남방의 문화인 한족문화를 받아들였다. 城은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유목민족 보다는 농경민족에 더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목민족은 정착하면서 성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아야만 했다.

역대 북경을 수도로 삼았던 왕조 중에서 한족이 세운 왕조는 명이 유일하다. 따라서 북경은 상대적으로 북방민족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낸다. 특히 청은 여

진족이 세운 왕조로 중국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시켰고, 지금 대부분의 중국 영토는 이 때 확정된 것이다. 그만큼 북경은 북방민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상해는 현재의 중국이 성립되기 전인 1930~40년대 이미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이름을 날렸지만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상해의 많은 자본들은 홍콩으로 흘러들어 갔다. 덕분에 홍콩은 지금과 같은 규모의 국제적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홍콩의 발전은 주강삼각주의 중심지인 광주와 심천의 몰락과도 연관이 있다. 1980년대 이후 광주와 심천은 개혁개방을 이용하여 과거의 영예를 되찾았고, 상해는 1990년대 이후 浦東지구를 개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또 상해는 2010년 엑스포를 통해 새로운 국제도시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해의 발전에는 상해의 모태가 되는 華亭이 있었고, 1843년 남경조약으로 인한 상해의 개항이 있었다. 개항으로 인한 상해는 급격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이면에는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있었다. 지금도 상해의 80% 이상은 외지인이다. 그 만큼 상해는 외부와의 교류가 발달하였고, 이러한 상해의 특징은 상해와 상해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천진은 북경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교두보로 삼았던 지역이다. 이것은 천진을 점령하면 곧 바로 북경으로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진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은 명의 영락에 의해서였다. 그 후로 청에 들어서면서 북경의 인구가 늘어나자 북경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량을 남방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천진은 북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거점지역이었다. 이곳에서 항주에서 온 물품들을 다시 북경으로 향하는 배에 옮겨 실어야 했다. 천진은 북경의 근접지역에 있으면서 남방에서 온 물품의 거점 지역이었고, 해양으로 향하는 요충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서양 열강세력들은 이곳을 점령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과거 침략에 의해 만들어진 조계는 지금에 와서는 오늘날의 천진을 있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여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천진을 나타내는 일부일 뿐이다.

중경은 서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정부의 서부대개발과 맞물려 경제적, 문화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1997년 이전의 중경은 사천의 중심지였으며, 그 후에는 북경, 상해, 천진과 더불어 4대 직할시에 들어섰다. 이를 계기로 중경은 더 이상 사천의 중심지가 아닌 중경만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중경은 巴蜀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중경문화를 巴蜀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좀 엄밀히 말하면 중경의 문화는 광의의 巴蜀문화 보다는 협의의 巴渝문화가 더 잘 어울린다. 지리적으로 중경이라는 공간에서 역사나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2. 4대 직할시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특징들을 통해 나타나고 영향을 받으며 형성해 나가고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예를 들어 북경의 경우는 오랜 문화를 가진 정치의 중심지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도시의 거리나 건물, 혹은 언어 등에서 나타난다. 상해나 천진, 중경의 경우도 항구 도시 또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지역이라는 한 공간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 2.1 북경

북방지역은 예부터 북방민족의 활동지였다. 전통적으로 요, 금, 원, 청 등은 모두 북방민족으로 중국의 한족을 위협하는 민족이었다. 이들은 북경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갔다. 이들 왕조를 거치면서 북경은 점

차 중국의 수도로서 자리 잡아 나갔고, 중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북경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경의 역사적인 특수한 배경을 인지하고 북경을 나타내는 특징을 대략 2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북경이 농경문화와 수렵유목문화의 교차지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경의 城문화이다.

첫째, 농경문화와 유목수렵문화의 교류. 농경문화는 남방을 중심으로 한 한족위주의 문화이고, 유목수렵문화는 북방을 중심으로 한 북방민족 위주의 문화이다. 북방은 기후가 건조하고, 농업이 적합하지 않아 유목과 수렵이 발달하였다. 또 농경문화는 정착문화이고, 유목수렵문화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간의 음식이나 신앙형태 및 생활습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해인이 북경인의 호방함을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여기고, 반대로 북경인은 상해인의 세련되고 세밀한 부분을 속이 좁다고 여기는 것은 생활양식이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북방의 특징은 북경의 음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경은 전통적으로 만두(속이 없는)나 餃子(물만두)가 주 음식으로 베풀어지지 않는 북방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음식이 쌀 보다는 밀가루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면이 발달되어 있다. 면 종류의 발달은 중국 서북쪽이 두드러진다. 이 지역은 아직도 우리의 수제비 같은 종류의 음식과 여러 종류의 면과, 빵 등이 주식으로 사용된다. 샤브샤브의 경우도 몽고의 쿠빌라이 때 만들어진 것으로 여전히 북경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다. 이렇듯 북경의 음식을 보면 남방의 음식보다는 북방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난다. 아마 긴 시간동안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요, 금, 원, 명, 청중에서 명 외에는 모두 북방민족이 세운 정권이다. 청의 멸망 후 중화민국이 수도를 지금의 남경으로 옮긴 것은 북방민족이 세운 정권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중화민국은 청의 주 세력이었던 만족을 억압하였고, 한족 위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북경은 동으로는 바다가, 서쪽으로는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기후도 반

습윤과 반건조 현상이 나타난다. 또 농경과 유목지역 사이에 있으면서 북방의 이민족들의 침략을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금도 북경의 북쪽 외곽으로는 몽고초원이 멀지않은 곳에 있고, 하북이나 하남은 농경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즉 북경은 남북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요충지대라고 할 수 있다. 북방의 역대 민족인 거란, 여진, 몽고 등은 중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북경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북경이 이들 민족의 생활권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언제나 북방의 초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청은 멸망 후에 돌아갈 길이 없었다. 단지 일본의 계략에 의해 한 때 만주국을 세워 잠시나마 청의 세력을 유지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만주국은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역사속으로 사라져 갔다. 청이 망하면서 청의 주 민족이었던 만족(여진족)은 보복이 두려워 한족의 성으로 바꾸었고 만족 이름을 가진 이는 점차 사라져 갔다.<sup>4)</sup> 여기에는 청이 오랫동안 한 곳(북경)에 정착하면서 한족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유목수렵문화가 자연스럽게 도태된 이유도 있다. 이것은 또한 청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북경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되었고, 북방민족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명이 원을 점령한 후 북경을 북평이라고 한 것은 명의 몽고인 이민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명은 중국의 역대 통일 왕조 중에서 그 영향력이 비교적 약해 서쪽이나 북쪽의 민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원이나 명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한 것은 청이었다. 청은 처음에 후금으로 시작하여 심양에 자리 잡았다. 후에 중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위하여 한족에게는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 청은 문화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한족을 받아들여 극복하였고, 변방지역은 소수민족을 이용하여 방어하였다.

그러나 청은 개방적이지 못하였다. 결국은 근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4) 閻崇年, <北京滿族的百年滄桑>, 《北京社會科學》, 2002年 第1期, 16쪽.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 원인중의 하나로는 농경문화의 특징인 폐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궁과 성곽이다.

둘째, 북경의 城문화.

북경에는 역대 황제가 머물렀던 고궁이 있고, 고궁을 중심으로 사방에 성곽을 따라 성문이 있다. 성곽은 좁은 범위에서 보면 고궁(자금성)을 들 수 있고, 넓게 보면 북경 외곽의 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장성과 고궁사이에는 북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북경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이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북경인들은 성곽을 사이에 두고 성안에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 북경 외곽의 만리장성은 멀리 북방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건설된 것이다. 이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북방민족과 한족의 세력이 나누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경의 성곽은 요와 금이 북경을 수도로 삼으면서 만들어지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원의 대도성 기초아래에서, 명·청 양대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궁을 중심으로 皇城과 內城 및 外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성문은 황성이 4개, 내성문 9개, 외성문 7개 등 모두 20여개가 있었다고 한다. 내성문은 남원(南垣) 3문, 서원 2문, 북원 2문, 동원 2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外城은 내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성의 남부를 감싸 안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南城이라고도 한다. 외성은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명嘉靖 32년(1553년)에 쌓아 올린 것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남쪽 외곽부분만 건설하였다. 외성문은 모두 7개로 永定門, 左安門, 廣安門, 右安門, 廣渠門, 東便門, 西便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모자 모양을 닮았다하여 帽子城(凸자 모양)이라고도 한다.

황성에는 모두 4개의 문이 있는데, 궁의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문을 가리킨다. 궁의 정남향으로 천안문이 있고, 천안문과 호응하는 북쪽에는 地安門이 있다. 東安門은 1912년 북양군벌 사건때 불에 타 없어지고, 西安門도 1950년대에 불에 타 소실되었다. 천안문은 현재 북경의 상징이자 중국의 상징이기도

하다.

북경은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그 민족구성은 역대 왕조에서 나타나듯이 거란, 여진, 몽고, 한족 등이었다. 이들의 주 세력은 모두 북방민족 이면서 유목수렵민족이었다. 이들은 원래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돌며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경을 수도로 삼으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몽고의 경우 한족의 농경을 바탕으로 한 정착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그리 오래가지 못한 반면 여진이 세운 청은 한족의 문화를 잘 흡수하고, 정착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왕권의 강화와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곧 유목민에 비해 덜 개방적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개방적이지 않은 청은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결과는 가져왔다.

역대 왕조들은 북경을 중심으로 성곽을 지었고, 내성과 외성을 쌓아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았다. 성곽을 지음으로써 안과 밖을 구분하였고, 차별화하였다. 북경의 성과 문은 차별을 나타낸다. 이 차별을 통해 북경인과 타지인으로 나누어진다. 지금은 경제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북경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전 중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그 벽을 허물기도 하지만, 세계속에서의 중국인이라는 의식과 중국내에서의 지역인으로서의 의식(북경인)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중국이 아무리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지역 간의 벽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경의 해정구에 있는 인민대학 남문 앞쪽으로 小南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오래되고 낮은 건물의 아파트와 현대식으로 꾸며진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 이들 각각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을 小區라고 부르는데, 흔히,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소구지역은 이렇다. 그들 소구지역은 이렇다하며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화한다.

북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경은 다른 지역을 통해 구분하고 차별화한다.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북방민족과의 교류이고, 성곽문화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목문화는 개방적이고, 정착문화인 성곽문화는 비개방적

이라는 것이다. 북경의 경우는 북방민족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개방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정착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폐쇄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북경의 토박이인 경우 외부에서 온 외지인을 믿지 않는 편이다.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외지인의 탓으로 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북경인은 중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경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북경의 수도와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한다. 북경인은 또 북경에 소재하는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우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인은 특권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이 특권의식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마치 원래부터 있어왔던 만리장성이나 북경의 성곽처럼 말이다.

## 2.2 상해

상해가 정식으로 개항하는 데에는 아편전쟁에 따른 남경조약이 있었다. 남경조약으로 홍콩은 영국으로 넘어가고 상해는 廣州, 廈門, 福州, 寧波와 더불어 개항되었다. 불평등조약으로 상해는 개방되었고, 조계가 설치되었지만, 무역의 거래량은 늘기 시작했고, 거대한 자본가들이 상해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상해는 개항을 계기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외지인의 상해로의 유입도 증가하여 상해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1843년 개항하기 전의 상해인이 원주민에 해당된다면, 그 후는 새로운 상해인의 형성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상해 시내와 부근 농촌 간의 언어적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150년 전과 비교해 상해어는 8개의 성조에서 5개의 성조로 변하였고, 62개의 운모는 32개로 변하였다.<sup>5)</sup>

1843년 개항할 당시 상해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였다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1852년에는 54만 명이 넘어섰다. 1930년에는 310만 명이 넘었고, 1948년에 540만 명이었다가 1949년에는 500만 명으로 약간 줄었다.

5) 錢乃榮, <上海語言的變遷>, 《社會科學》, 2000年 第2期.

(<표-1>) 이 중에서 외지에서 온 인구는 상해의 현지인을 훨씬 넘어섰다. 1946년에는 79.3%, 1949년 1월에는 84.9%를 차지해 상해에서 외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엿볼 수 있다.(<표-2>) 1949년 신중국 성립 후에도 상해의 유입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3년에는 281만 명이나 되었다. 2000년에는 인구가 1,600만 명에 달하였고, 그 중에 반년이상 거주한 인구는 299만 명에 달했다. 2009년에는 1,951만 명에서 외래인구는 541만 명이나 되었다.<sup>6)</sup> 1949년 상해의 인구 구성은 외래인이 대부분이었으며, 후에도 외지에서 온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상해인은 외부의 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인 면을 보인다. 설에 의하면 1843년 상해가 개항되면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광주의 자본가들도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상해인의 성격이 온순하고 남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기질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광주인은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호전적인 기질이 있어 외국인들이 꺼려하였다고 한다. 상해가 개항되자 외국인도 상해인의 이와 같은 성격과 잘 어울려 자연스럽게 상해로 몰려들었고, 상해인은 이들을 통해 부를 쌓았고, 상해는 국제도시로 변모해 나갔다. 이와 같은 상해만의 특징은 상해문화를 海派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하였다.

熊月之는 상해인의 이와 같은 특징은 인구구조와 주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기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근대 이전의 상해의 특징을 다음 3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는 商을 중시하고, 둘째는 사치스럽고, 衣와 食, 소비를 중요시 한다. 셋째는 관용이다.<sup>7)</sup>

상해의 외래인구는 춘추전국시대, 당, 송, 원, 명, 청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상해가 개항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외래인들과 현지인들은 긴 시간을 상해라는 공통된 장소에서 공통된 문화를 형성해 왔고, 또 형성해 나가고 있다. 상해인은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한다.

www.kci.go.kr

6) 상해통계국.

7) 熊月之, <移民社會與上海文化>, 刊於《上圖講座專刊》, 2004年 第8期, 2쪽.

&lt;표-1&gt; 1852-1949년 상해인구 상황

년도	화계	공공조계	법조계	총인구
1852	544413			
1855		20243		
1865		92884	55925	
1866	543110			
1870		76713		
1876			97335	
1879		11009		
1885		129338		
1890		171950	41166	
1895		245679	52168	
1900		352050	92268	
1905		464213	96963	
1909	671866			
1910		501541	115946	
1914	1173653			
1915		638920	149000	
1920		783146	170229	
1925		840226	297072	
1927	1503922			
1928	1516090		358453	
1929	1620187			
1930	1702130	1007868	434807	3144805
1931	1836189	1025231	456012	3317432
1932	1580436	1074794	478552	3133782
1933	1795953	1111946	496536	3404435
1934	1925778	1148821	498193	3572792
1935	2044014	1159775		
1936	2155717	1180969	477629	3814315
1937		1218630		
1940	1479726			
1942		1585673	854380	
1945				3370230
1946				3830039
1947				4494390
1948				5406644
1949.3				5455007
1949				5029160

(※ 1930년 이전의 화계인구수에는 외국인구가 포함되지 않음. ※공공조계와 법조계 인구에는 외국인이 포함됨.)

&lt;표-2&gt; 1946, 1950년 1월 상해시 현지인과 외래인의 구성

년도	현지 관적		비현지 관적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946	767902	20.7	2996728	79.3
1950.1	750855	15.1	4230137	84.9

(1946년 총인구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1>, <표-2>는 상해시 지방지 관공실 사이트 참조.

<http://www.shtong.gov.cn/node2/node2247/node4564/node79123/node79137/userobject1ai103292.html>

상해가 외부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지만 상해 본연의 특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엄연히 상해에는 本地인이 있고, 상해인과는 구별된다. 외지인은 상해에 오면서 상해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만, 상해 안에서는 本地人과의 차별을 통한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상해 本地人の 특징은 상해 특유의 방언에서도 나타난다. 상해의 인구 중에서 80%이상이 외래인이지만 상해방언의 어조나, 단어, 어법 등은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은 듯 잘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상해의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특징이 때에 따라서는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것은 스스로의 문화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의식이나 국가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외지인이 상해에 오면 상해어를 배운다. 북경의 외지인이 북경 사투리를 쓰는 것과 같다. 외지인은 상해 방언의 습득을 통해 상해화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심지어는 상해인의 행동이나 습관 등을 익히며 상해인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정체성은 이중성을 띠게 될 것이다. 상해에 온 외지인이 한 가족과 교류 할 때에는 고향의 말을 사용하지만, 길거리에서는 상해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상해의 정체성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sup>8)</sup>

8) 상해라는 지명에 대하여 대략 3가지의 설이 있다. 하나는 “地居海之上洋”에서 상해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 설이다. 지금도 상해를 “海上”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두 번째는 상해는 과거 華亭海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외국 상선이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상해라고 이름이 생겨났다는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송강 남쪽에 18개의 지류가 있고, 그 중에서 上海浦와

## 2.3 천진

천진은 우리나라에서 근거리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상주인구가 1176만 명(2007년)에 이르는 4대 직할시 중의 하나이다. 천진은 역사가 600여년이나 되지만, 중국의 유명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명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 현대에 들어오면서 천진은 북방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천진이란 명칭은 언제 등장한 것일까? 천진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천진의 형성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천진이란 명칭의 출현은 명의 永樂2년(1404년)에 군사제도인 天津衛가 설치되면서이다. 천진은 송과 금 시기에는 直沽寨이라고 불리었고, 원 때에는 海津鎮이라고 하였는데, 군사요충지면서 식량운송지의 중심지였다. 명 태조인 주원장은 원을 멸망시키고, 명을 건설한 후, 왕권의 강화를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왕으로 봉하였다. 주원장은 朱棣라는 넷째 아들을 燕王으로 봉하고 북경을 지키게 하였다. 1398년 주원장이 병으로 죽자 그의 長孫인 朱允炆가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즉 建文帝이다(주원장의 손자가 왕이 된 이유는 주원장의 장자가 병이 들어 요절하였기 때문이었다). 연왕 朱棣는 1400년에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며 군사를 일으켜 建文帝를 폐하고 황제가 되었다. 朱棣는 먼저 천진의 전신인 直沽에서 병사를 이끌고 滄州를 지나 남경을 함락한 후 황제가 되었는데, 1400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였다. 1402년 직위에 오른 朱棣는 연호를 永樂이라고 하였다. 朱棣는 황제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켰던 直沽를 “천자가 渡河한 지역”이란 뜻으로 천진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sup>9)</sup>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천진의 근간이 된 것은 명 영락2년(1404년 11월)에 衛를 설치한 후부터이다. 이어서 1404년 12월에 천진左衛를 설치하고, 영락 4년인 1406년에는 천진右衛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下海浦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상해라는 명칭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9) www.baidu.com, 百度百科

天津三衛이다.<sup>10)</sup>

衛는 일종의 군사제도로 명이 수도를 북경으로 천도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 작업이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명은 영락 19년(1421년)에 북경으로 천도하였고, 100만 인구에 육박하는 북경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일 년에 300만석이나 되는 식량을 남방으로부터 운하를 통해 들여와야만 했다. 천진은 북경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로, 이렇게 운반되어 온 식량은 천진을 거쳐야만 했다. 운하가 좁고 낮아 남방에서 온 식량은 이곳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배에 실어 북경으로 운반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천진은 북경으로 통하는 문호이면서 동시에 식량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다.<sup>11)</sup>

청에 들어서면서 衛의 군사제도는 폐지되었다. 먼저 삼위를 하나의 위로 합병한 후, 이어서 雍正 3년(1725년)에는 衛를 천진주로 바꾸고, 같은 해에 다시 천진주를 直隸州로 승격시켰다. 옹정 9년(1731년)에는 천진주를 다시 천진부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에 1개 주와 6개의 현을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sup>12)</sup>

천진은 개항하기 전인 19세기 50년대 말에 이르러 강과 바다를 이용한 중개 무역 위주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당시 인구는 20만 정도였으며, 북방에서 북경을 제외한 가장 큰 도시였다.

천진의 본격적인 발전은 서방의 열강세력에 의해 개항이 시작되면서이다. 서양 세력들은 천진을 점령하여 북경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하였다. 1858~1860년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3번에 걸쳐 大沽口를 공격하였고, 大沽炮臺를 2번 점령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천진城을 점령하고 개항시켰다. 연합군은 천진을 점령한 후, 북경을 점령하였고, 천진은 통상항구가 되었다. 1900년에는 義和團운동을 진압한다는 핑계로 8개국군이 연합하여 大沽口를 거쳐 천진과 북경을 점령하였다. 천진이 개항되던 그 해 영국, 프랑스, 미국은 천진의 海河에 조계를 설치했다. 이어서 독일은 미국 조계지역의 아래쪽에, 일본은 프랑스 조계지역 위쪽에 각각 조계를 설치했다. 이어서 조계가 없던 러시

10) 郭風岐, <天津建成六百年由來>, 《天津經濟》, 2004. 1, 總第116期, 78쪽.

11) 萬民, <天津600年>, 《百年湖》, 2004年 第9期, 74쪽.

12) 羅澍偉, <淺析海河與天津歷史文化的關係>, 《理論與現代》, 2003年 第6期, 65쪽.

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조계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자 천진의 海河양안에는 모두 9개 국가의 조계가 들어서게 되었다. 후에 미국은 1902년 영국의 조계와 합치게 되었다. 하지만 천진에는 여전히 8개 국가가 조계를 유지함에 따라,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8개의 나라가 한 나라의 지역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계가 설치된 海河의 양안은 무역발전에 유리한 편리함이 갖추어져 있었다. 각국은 海河양안에 건물을 세우고 부두를 건설하여 조계를 중심으로 천진의 발전을 가져왔다. 천진의 개항과 조계의 설치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와 천진으로 하여금 북방의 경제중심지가 되게 하는 밑바탕 역할을 하였다. 천진은 1930년대에 이르러 완전한 공업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전무후무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당시 공업투자액은 전국에서 상해에 이어 2번째로 많았으며 북방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천진의 중심지역은 개항 이전에는 海河 상류의 오른쪽 이었다면, 개항 후에는 조계지역의 발전에 따라 海河의 하류 쪽으로 이어져 발전했다. 그러나 항구는 여전히 海河의 상류에 있었으므로 바다 쪽과는 거리가 있어 경제발전에 제약을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에 海口에 인공항구를 건설하였다. 海河의 상류와 하류의 개발은 오늘날 천진의 중심지역과 濱海新區의 발전을 가져왔다.<sup>13)</sup>

역사적으로 보면 천진은 과거에 북경에 물자를 제공해주는 지역으로 정치적인 변두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에는 북방지역의 무역중심지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오늘날의 천진으로 변모하였다.

13) 천진은 1928년 6월에 국민당에 의해 천진특별시로 지정되고, 1930년 6월에 국민정부 행정원 직할의 천진시로 바뀌었다. 그 해 11월에는 하북성의 省會를 천진으로 옮기면서, 省에 귀속되었다. 그 후 1935년 6월에 하북성 성회를 保定으로 옮기면서, 천진을 직할시로 바꾸었다. 그 후 1949~1958.2 북경시와 천진시는 모두 하북성의 중앙 직할시가 되었다. 1958년 2월에는 천진을 하북성에 귀속시키고, 1966년 5월, 1일 천진을 다시 직할시로 회복시켰다. 현재는 중국북방의 연해지역에서 제일 큰 개방도시이다. 1860년을 기준으로 당시 천진은 5대 통상입구중의 하나로 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2008년 천진항의 물동량은 3.55억 톤으로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한다. 2009년에는 물동량이 3.8억 톤으로 북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2.4 중경

중경하면 巴蜀문화를 떠올린다. 巴蜀문화는 엄밀히 말하면 중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성도를 중심으로 한 사천성 전체를 포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巴渝문화는 巴蜀문화 보다는 그 범위 면에서 협소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경이 巴蜀문화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巴渝문화만이 중경을 대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경의 문화는 대략 巴, 楚, 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민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巴, 楚는 모두 苗蠻에 속하며 苗蠻은 또 東夷의 수령인 蚩尤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巴人は 뱀을 토tem으로 삼았다고 전해지는데,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태호복희씨와 여와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또 《山海經》의 《海內經》에 나오는 苗인이 믿는 신의 형상과 유사하다.<sup>14)</sup> 위 내용으로 보아 이들 모두 뱀을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蜀민족 기원은 氐羌으로 알려져 있는데, 氐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베트인의 기원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티베트에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氐羌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볼 때 氐羌이 티베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蜀의 기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華陽國志·蜀志》의 기록에 의하면, 蜀王은 蠶叢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다.<sup>15)</sup> 이들의 토tem은 누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蜀, 氐羌, 티베트, 巴 등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서로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중경문화에 영향을 주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巴와 蜀는 중경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경문화를 岷蜀문화라도 한

14) 馬昌儀 著, 《古本山海經圖說》, 山東畫報出版社, 628쪽. 원문: 海內經: 有人曰苗民。有神焉, 人首蛇身, 長如轅, 左右有首...

15) 劉琳 校注, 《華陽國志》, 成都時代出版社, 2007, 91쪽. 원문: 有蜀侯蠶叢, 其目縱, 始稱王.

다. 하지만 중경만을 놓고 볼 때 협소한 의미의 巴渝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이처럼 巴渝문화는 중경의 독특한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재형성되고 있다. 巴渝문화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는 이민이 자주 있었다는 점이다. 중경의 선민이 비록 巴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후대로 전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이민이 유입되었다. 역사상 비교적 큰 이민의 유입은 3차례 정도 있었다. 첫 번째는 湖廣填四川이다. 湖廣은 원나라 때 설치된 湖廣行城(호남과 호북을 가리킴)을 가리키는 것으로, 湖廣填四川은 원말과 명초, 명말과 청초의 2번에 걸친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가리킨다. 인구의 이동은 주로 호남, 호북, 광둥(주로 객가인) 등의 주민이 사천의 각지로 유입되었는데, 일부 강서, 복권, 광서 등지의 주민도 유입되었다. 이들 지역의 주민이 사천으로 유입된 원인에는 사천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관련이 있다. 명말에서 청초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 사천경내에서는 내란과 재해, 전염병 등이 일어나면서 인구의 감소를 불러왔다. 청초에 사천의 인구가 겨우 50만 정도였고, 중경은 수백 가구가 전부였다. 이로 인해 중경의 관할 현 내에는 열 몇 가구만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sup>16)</sup>

현재 사천의 한족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원적을 물어보면 심중팔구는 모두가 “우리 조상은 湖廣填四川 때 옮겨 왔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 많은 인구가 사천으로 유입되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경을 제2의 수도 삼았을 때이다.

세 번째는 大三線(처음에는 서남과 서북지역—호남, 호북, 하남을 포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천, 귀주, 운남, 섬서, 청해, 감숙 등의 대부분 지역과 중원의 하남, 호북, 호남, 광둥, 광서, 산서, 하북 등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건설에 의한 이민이다. 이로 인해 5대 이상의 중경인은 1/8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다.<sup>17)</sup>

16) www.baidu.com-백과사전

17) 王順達, 陳適宜, 碧海, <論重慶文化與重慶經濟發展>, <重慶大學學報>, 2004.1, 28쪽.

중경의 이민에 의한 인구유입은 중경으로 하여금 다문화적인 특징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중경인들은 스스로 외부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은 편이라고 한다.<sup>18)</sup> 중경인은 직할시의 일원으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천의 성도와 차별화 한다. 중경인은 스스로 성도보다 중경이 더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내세운다. 중경이 외부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은 것은 중경인으로서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또 중경의 본토인과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사이의 융합이 잘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중경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둘째는 강으로 둘러 쌓인 반도라는 점과 그 반도가 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천은 분지에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폐쇄적으로 비춰진다. 또 사천은 천부지국이라 할 만큼 땅이 비옥해서 곡식이 풍부하다. 이러한 사천의 지리적 특징은 외부의 세계와 단절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분지 문화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이러한 분지의 특징은 중경에도 적용된다. 특히 중경의 중심지는 강으로 둘러 쌓여 있어 폐쇄적인 느낌을 준다. 중경 중심부를 처음 방문하면 마치 섬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또 중경 대부분이 평지가 아닌 산을 깎아 만든 도시라서 성도가 평지인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중경인들은 하나같이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중경인을 성도인과 비교하면 성도인이 약간 여성적이라면 중경인은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중경인은 의리를 중시하는 반면에 성도인은 말이 앞선다고 한다.<sup>19)</sup> 하지만 중경인 스스로 내세우는 장점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중경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중경에는 미인이 많다고 자랑한다. 여기에서 중경인의 자연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면을 볼 수 있다. 王順達 등은 《論重慶文化與重慶經濟發展》이란 문장에서 중경의 산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몇 가지를 이

18) 2010. 2. 성도와 중경 답사.

19) 위와 같음.

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폐쇄와 보수이다. 자연지리적인 조건이 외부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이지 않은 생활태도이다. 세 번째는 속이 좁다는 것이다.<sup>20)</sup>

이 외에 중경을 나타내는 건물이나 유적지 혹은 상징물 등은 수도 없이 많다. 가령 겨울철이면 유독 많이끼는 안개는 중경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장강이나 火鍋음식점, 瓷器口 등은 모두 중경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 3. 설문문항 조사결과

중국의 4대 직할시의 의식과 관련하여 14개의 설문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수량은 북경은 134부, 상해는 152부, 중경은 139부, 천진은 220부가 조사되었다. 설문 결과는 앞에서 다룬 4대 직할시의 역사문화적인 특징이 어떻게 지역의식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문항 중에서 각 지역별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3.1 북경

북경이 중국의 수도라는 잇점으로 인해 북경인들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역적 자긍심을 나타내는 설문내용에서 찬성이 52.3%(약간찬성 28.4%, 매우찬성 23.9%)로 저조한 편이었다. 또 4대 직할시의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북경이 가장 낮은 비율(평균 3.69)로 나타났다. 따

20) 王順達, 陳適宜, 碧海, <論重慶文化與重慶經濟發展>, 《重慶大學學報》, 2004.1, 28쪽.

라서 지역사회의 일원에 대한 생각도 찬성이 57%(약간찬성 27.6%, 매우찬성 28.4%)로 낮았으며, 4개 지역의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3.80로 가장 낮게 나왔다. 성의 일원에 대한 경우도 찬성이 58.7%로 높지 않았으며, 나머지 3지역과 비교에서도 가장 낮게 나왔다. 이점으로 보아 북경인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따른 자긍심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다'라는 설문 내용에서는 67%를 받았다. 4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평균 3.92)로 나와 북경인이 북경이라는 수도로서의 잇 점을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나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바란다'라는 항목이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3.81) 나온 것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다른 지역 사람에 대한 불신, 타 지역 사람에 의한 무시, 정부의 우리지역 경시는 각각 36.7%, 58.7%, 50.7%로 나왔으며, 4개 지역을 비교해 보면 북경이 가장 높게 나와 나머지 3개 지역에 비하여 신뢰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북경의 타 지역에 대한 불신과 타 지역 사람에 의한 무시가 높게 나온 것은 북경인의 의식이 다른 3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해당 지역에 자손들이 거주하기를 바라는 지역 소속감의 연속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온 것에서도 북경의 성곽문화의 특징인 폐쇄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북경은 4대 직할시 중에서 타 지역에 대하여 덜 개방적이고, 지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지 않은 반면에 우리지역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북경인은 수도인으로서의 자신 감보다는 특권의식과 열등감이 중층으로 나타나는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lt;표-3&gt; 4대 직할시 지역의식의 평균차이 검증

설문내용	지역				
	북경	상해	중경	천진	합계
지역사회 일원	3.80	4.01	4.26	4.30	4.12
성의 일원	3.86	3.95	4.35	4.11	4.07
국가의 일원	4.61	4.59	4.53	4.55	4.57
세계시민 인식	4.27	4.51	4.32	4.26	4.33
독자적 개인	3.88	3.24	4.09	4.05	3.83
균형발전 인식	2.79	2.99	2.71	3.38	3.02
지역발전 인식	3.95	4.01	3.13	3.69	3.71
지역출신의 우대	3.92	3.59	3.40	3.89	3.72
지역적 자긍심	3.69	3.77	3.70	3.99	3.81
해당지역의 발전전망	4.05	4.18	3.87	4.01	4.03
지역소속감의 연속성	3.81	3.76	3.50	3.70	3.70
다른 지역사람에 대한불신	3.27	3.11	3.26	2.87	3.09
타 지역 사람에 의한 무시	3.70	3.12	3.20	2.96	3.20
정부의 우리지역 경시	3.58	3.17	3.28	2.82	3.16

### 3.2 상해

상해는 1843년 개항 이래 남방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경제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세계시민의식이 다른 3개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세계시민의식이 86.2%(약간찬성: 19.1%, 매우찬성: 67.1%)로 높게 나왔으며, 4대 직할시 지역 간의 평균차이도 4.51로 가장 높게 나와 상해가 국제도시(海派문화)라고 할 만큼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지역의 발전전망에 대한 설문내용에서도 85.6%(약간찬성: 52.0%, 매우찬성: 33.6%)로 4개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4대 직할시 간의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4.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상해지역이 기타 3개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되어 있다(71.1%)'라는 지역발전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지역발전인식은 71.1%로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대 직할시의 평균차이에서도 4.0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독자적인 개인에 대한 항목에서는 48.7%로 4대 직할시에서 가장 낮게 나왔으며, 평균차이도 3.24를 차지해 가장 낮았다. 이것은 상해가 4대 직할시 중에서 세계시민의식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룬 지역이 독자적 개인의식이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상해의 인구가 80%이상이 외지인이고, 또 일치감치 국제적인 도시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결과가 개방적으로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 경제 발전에 따라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는 점도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와 상해인의 지역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 3.3 천진

천진은 항주에서 북경으로 통하는 운하의 길목에 위치하여 물류의 중심지역할을 하였다. 설문문항 중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찬성이 82.4%(약간찬성 30.6%, 매우찬성: 51.8%)로 나와 4대 직할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대 직할시 지역을 비교한 평균차이에서도 가장 높은 4.30을 받았다. 균형발전 인식부분에서는 찬성이 45.9%(약간찬성: 27%, 매우찬성: 18.9%)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나머지 3개 지역에 비해서는 가장 높게 나왔다. 4대 직할시의 평균차이도 3.38로 가장 높게 나와 천진인들은 천진의 발전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골고루 발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지역적 자긍심은 4대 직할시에서 가장 높은 66.8%를 차지하였고, 지역 간 평균차이는 3.99로 가장 높게 나와 가장 낮은 북경과 대조적이었다.

세계시민의식, 다른 지역사람에 대한 불신, 타 지역 사람에 의한 무시, 정부의 우리지역 경시 등은 4대 직할시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천진이 가장 낮게 나

와, 천진이 덜 개방적이지만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나머지 3개 지역에 비해 신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4 중경

중경은 지리적으로 서남의 중심지에 있고, 중국정부의 서남부 대 개발과 맞물려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중경인은 성의 일원이라는 설문에서 기타 3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83.7%(약간찬성 32.6%, 매우찬성: 51.1%)가 나와 직할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4대 직할시 지역 간의 평균차이도 4.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동시에 독자적 개인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의 경우도 78.4%로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중경인은 직할시민으로서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경인은 균형발전 인식, 지역발전 인식, 지역 출신의 우대, 해당지역의 발전전망, 지역 소속감의 연속성 등의 문항에서 각각 27.7%, 36.2%, 47.5%, 70.9%, 50.3%로 나와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중경인은 중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되어 있지 않고, 타 지역 출신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시각은 중경지역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경이 비록 행정적으로는 사천에서 분리되어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여전히 사천권에 속해 있으므로 사천특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중경은 사천분지라는 특징과 또 중경자체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심지는 산을 깎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경인의 의식은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중경인은 중경이 경제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고 여기

고 있다. 또 이런 지리적인 한계는 중경인 스스로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 4. 결론

이상과 같이 4대 직할시의 지역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라는 특수한 환경과 과거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이 만나던 요충지로서 북경만의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방문화는 농경문화가 대표적이고, 북방문화는 수렵유목문화가 대표적이다. 북경의 성곽은 요에서 금과 원, 명, 청을 거치면서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북경은 황성, 내성, 외성 등 사방이 성곽으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성곽은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북경인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설문에서 4대 직할시중 북경이 가장 폐쇄적으로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수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특권 의식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은 좋지 않고, 타 지역이나 문화에 대하여 배타적이다. 따라서 북경인은 중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해는 1843년 개항 이래 꾸준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국제도시라고 불리었다. 경제적 발전에 따라 외지인의 유입은 증가했고,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해외문물을 일찍 경험하였다. 이것은 상해로 하여금 개방성을 띠게 만들었다. 설문에서 세계시민의식이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개방성은 상해를 더욱 더 발전하게 하였다. 상해의 경제발전은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상해지역에 대한 발전전망이나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상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되어 있다는 인식은 경제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상해는 북경처럼 폐쇄적이지 않은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불신도 천진 다음으로 낮고,

타 지역 사람에 의해 무시당한다는 의식도 천진 다음으로 낮아 북경에 비해 외래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상해인의 이런 특징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천진은 예로부터 북경으로 통하는 길목의 요충지였다. 북방의 개항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천진은 북경의 그늘에 가려져 그 존재가치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천진은 이를 극복한 듯 보인다. 이는 설문에서 균형발전 인식이라든가 혹은 지역적 자긍심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천진은 4대 직할시 중에서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가장 낮고, 타 지역 사람에 의해 무시당한다고 여기지 않으며, 정부도 천진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한다. 천진이 북경처럼 폐쇄적이지 않은 것은 상해처럼 개항되면서 일찍이 해외문화를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1966년 천진이 직할시로 회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과거에 북경의 주변 도시가 아닌 새로운 천진으로 탄생하면서 천진인의 천진에 대한 자긍심도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최근에 천진이 야심차게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海河지역을 개발하면서 천진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중경은 설문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균형발전 인식이나 지역발전 인식이 4대 직할시 중에서 가장 좋지 않게 나왔다. 또 중경에 대한 발전전망이나 지역 소속감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중경이 지리적인 한계에 따른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경인은 직할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4대 직할시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주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직할시으로써의 상대적 우월감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중경인이 우대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자연지리적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경제적 낙후에 의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렇기 때문에 중경인은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북경, 상해, 천진, 중경의 4대 직할시는 자연 지리적 환경과 역

사문화적인 요소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배경은 보수적 혹은 폐쇄적인 의식을 보이고, 상해는 개방성과 경제적 자신감이 넘쳐나는 의식을 보여준다. 천진은 상해와 마찬가지로 개방적 이면서 타 지역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의식을 보여주고, 중경은 지리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다.

설문에서 4대 직할시가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은 균형발전인식이었다. 균형발전 인식은 주로 경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4개 직할시 지역인들은 모두 자기가 속한 해당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설문문항 중 국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는 4개 직할시 모두가 다른 문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유의미한 지역적 평균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에 의한 국가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을 나타낸다. 4대 직할시의 지역인들은 모두 국가와 자신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은 때로는 중화민족이란 정체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화민족에 대한 이해는 중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 < 參考文獻 >

- 강준영 저, 《중국의 정체성》, 살림출판사, 1989.
- 고스기 야스시 외 엮음, 황역식 옮김, 《정체성-해체와 재구성》, 한울, 2007.
- 김영희·김동노·신명직·윤인진·김경미·정용화·공임순 공저,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혜안, 2009.
- 류짜이푸 린강 지음, 오운숙 옮김, 《전통과 중국인》, 플래닛, 2007.
- 양승태 지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 이중텐 지음, 박경숙 옮김, 《이중텐, 중국인을 말하다》, 은행나무, 2008.
- 임춘성·곽수경·김정옥·노정은·유경철·임대근·홍석준 공저, 《상하이 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산지니, 2010.
- 趙政男 著,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중국 사회 출판사 엮음, 《사람을 알아야 중국을 안다》, 해바라기, 2002.
- 클리퍼드 기어즈 지음,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1999.
- 팀 에덴서 지음,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 何新 著, 洪熹 譯, 《神之起源》, 동문선, 1990.
- 劉琳 校注, 《華陽國志》, 成都時代出版社, 2007.
- 李梵 編者, 《中國人性格分析》,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美]亞瑟史密斯, [日]桑原隲藏, 辜鴻銘 著, 《一本书看懂中國人》, 新世界出版社, 2009.
- 辜鴻銘 著, 楊華青 譯, 《中國人的精神》, 天津教育出版社, 2007.
- [日]穀川道雄 著, 馬彪 譯, 《中國中世社會與共同體》, 中華書局, 2002.
- 朝戈金 主編, 《中國西部的文化多樣性與族群認同 — 沿絲綢之路的少數民族口頭傳統現狀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熊月之 著, 《上海通史(1-15)》, 上海人民出版社, 1999.
- 馬昌儀 著, 《古本山海經圖說》, 山東畫報出版社, 2001.
- 楊正文 著, 《苗族服飾文化》, 貴州民族出版社, 1998.
- 張宏杰 著, 《中國人的性格歷程》,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劉建, <古老天津的訴說>, 《中國文化遺產》, 2005年 第2期.
- 羅澎偉, <淺析海河與天津歷史文化的關係>, 《理論與現代化》, 2003年 第6期.
- 陳克, <關於天津文化的理論思考>, 《理論與現代化》, 2003年 第6期.
- 陳克, <天津與近代中國的滄桑巨變>, 《中國文化遺產》, 2005年 第2期.
- 萬民, <天津600年>, 《百年湖》, 2004年 第9期.
- 王鳳雲, 李育霞, <提升天津城市文化品位的思考>, 《天津經濟》, 2006. 7, 總第146期.
- 張雲風, <天津歷史變遷與地名的關係>, 《中國地名》, 1997年 第4期.
- 曹莉萍, <天津商人與清末民初社會習俗變遷>, 《社會科學輯刊》, 2004年 第3期(總第152期).
- 濮文起, 莫振良, <天津宗教的歷史與現狀>, 《世界宗教研究》, 2004年 第2期.
- 蔡捷, 劉臨之, <關於21世紀天津文化走向問題的思考>, 《天津商學院學報》, 1998年 第1期.
- 章用秀, <天津文化及思想精化>, 《天津行政學院學報》, 2004年 第6卷 第4期.

- 陸桂敏, 高展, <關於天津區域文化形象的思考>, 《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年 第4期.
- 郭風岐, <天津建成六百年由來>, 《天津經濟》, 2004.1, 總第116期.
- 陳適宜, 鄒碧海, 王順達, <論重慶文化與重慶經濟發展>, 《重慶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10卷 第1期.
- 熊篤, <論巴渝文化十大系列>, 《重慶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1年 第7卷 第4期.
- 熊篤, <論“巴渝文化”是貫通重慶古今的主流文化>, 《重慶社會科學》, 2005年 第6期.
- 胡昭曦, <西部大開發與巴蜀文化研究>, 《社會科學研究》, 2001年 第5期.
- 張鳳琦, <發展重慶文化的思考>, 《重慶社會科學》 2006. 6.
- 楊柳, <論文化產業提升城市形象的策略—以重慶為例>, 《社會科學》, 2010. 2.
- 薛新力, <重慶文化精神簡論>, 《探索》, 2002年 第1期.
- 薛新力, <當代重慶文化的發展歷程>, 《重慶社會科學》, 2005年 第12期(總第132期).
- 屈小強, <對巴蜀文化數千年歷史特點的思考>, 《史壇縱論》, 2010.
- 譚宏, <重慶城市文化競爭力研究>, 《重慶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年9月, 第28卷 第5期
- 王泉根, <中國第四直轄市——重慶文化譚議>, 《西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年 第1期.
- 閻崇年, <北京文化的歷史特點>,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5期(總第185期).
- 閻崇年, <北京滿足的百年滄桑>, 《北京社會科學》, 2002年 第1期.
- 李建盛, <北京文化60年>, 《北京社會科學》, 2009年 第5期.
- 邱國盛, <百年北京史研究綜述>, 《北京社會科學》, 2002年 第3期.
- 尹鈞科, <談談北京的地域文化>, 《北京社會科學》, 2009年 第6期.
- 申秀婷, 邵新春, <北京的城門(上)>, 《北京檔案》, 2002年 第10期.
- 申秀婷, 邵新春, <北京的城門(下)>, 《北京檔案》, 2002年 第12期.
- 王憲洪, <北京方志源流考略>, 《中國地方誌》, 2009年 第8期.
- 閻有喜, <解讀中國古都——北京城>, 《今日科苑》, 2009.
- 盧培元, 盧寧, <北京: 中華民族歷史發展中的特殊城市>, 《北京聯合大學學報》, 2000年3月 第14卷 第1期.
- 陳小野, 黃毅, <北京文化的核心是中國傳統文化(上)>, 《北京中醫藥》, 2009年8月, 第28卷 第8期.
- 陳小野, 黃毅, <北京文化的核心是中國傳統文化(下)>, 《北京中醫藥》, 2009年9月, 第

28卷 第9期.

李紀兵, <中華民族之先進精神概要>, 《太原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4年9月, 第3卷 第3期.

楊揚, <當代中城市文化建設的思路優化—對上海城市文化建設的一點思考>, 《社會人文》, 2010.

王立人, <長三角區域文化共同發展之思考>, 《江南論壇》, 2004年 第3期 總第161期.

紫茂松, <上海古代歷史文化發源地—松江>, 《上海農村經濟》, 2001年 第8期.

張興龍, <上海文化治源的江南影像>, 《文化密碼》, 2008年 第12期.

龔若棟, <上海人與上海文化探源>, 《歷史教學問題》, 2002年 第4期.

蔡豐明, <上海城市民俗文化遺產的傳承機制及主要形式>, 《徐州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年9月 第24卷 第5期.

陳伯海, <思考上海文化的歷史與未來>,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1999年 第3期.

錢乃榮, <上海語言的變遷>, 《社會科學》, 2000年 第2期.

劉士林, <上海城市的起源與發展>, 《江蘇行政學院學報》, 2009年 第3期 總第45期.

## < 中文提要 >

本論文試圖通過對四大直轄市的居民意識來探索中國人的意識。那麼研究中國人的意識(認同)為什麼非要選擇四大直轄市呢? 這是因為四大直轄市不只是行政上的中心城市, 而且還是經濟和歷史文化的中心地區, 所以以四大直轄市的居民為研究對象去研究中國人的意識是很重要的。但對四大直轄市的居民的意識研究只是認識七大經濟圈(廣域圈)的意識的一個過程, 而不是一個最終的目標。本論文從這一點出發, 去考察中國人的意識。

第一章考察了研究現狀, 研究方法, 研究對象等方面的問題。

第二章考察了四大直轄市的經濟歷史文化背景。一個地區的歷史文化是生活在這個地區的人們所共有的。只有擁有共同的歷史文化才會有共同的意識(認同), 因此認識一個地區的歷史文化背景對研究這個地區的人們的意識是非常重要的。

第三章分析了對四大直轄市的問卷調查的內容。問卷調查與文獻調查一樣, 是研究地域文化中重要的一種方法。如果只重視文獻調查而忽視問卷調查, 有可能會錯過一些重要的實際情況。問卷調查可以補充以文獻為主的研究的不足, 當然, 文獻研究也可以補充問卷調查的不足。本章參考前面引用的文獻資料, 然後結合問卷調查, 對地區意識進行綜合

性研究。從這一點來看,這篇論文是有意義的, 因為這樣的綜合性研究能幫助我們更好地理解中國人的意識(認同), 而只有更好地理解了中國人的意識, 才能更好地增加韓中兩國之間的交流, 同時還可以避免不必要的衝突和誤解。

關鍵詞：北京, 上海, 天津, 重慶, 地區意識, 認同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12.27	2011.2.10	2011.2.14	2011.2.15	2011.2.28